문화산책

슬픔 아니고선 세계를 깊이 알 수 없다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전문위원

그녀의 왼손 검지가 천천히 왈츠를 추기 시작한다. 색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린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손 검지뿐이다. 손가락을 움직여 가닿을 수 있는 10cm 정도까지가 도화지에 그가 그을 수 있는 선의 한계 지점이다. 그는 장애인 화가다. 그림을 그리다가 지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왼손 검지로 자판을 눌러가며 시를 쓴다. 느리지만 모음과 자음이 하나 조립되고, 한 땀 한 땀 시어가 모여 시가 완성된다.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그이는 그림과 시로 바꾼다.

'창가에서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휘날리는 법을 가르치는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두워지는 창가에서 툭 소리가 더욱 귀청을 울리는 나도 바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 바람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황신애 시인은 육십대 초반. 고향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됐던 곳이다. 완도에서 자랐다. 호남예술제에 그림을 출품해 상을 받기도 했고, '새농민' 잡지 수필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던 꿈 많은 소녀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광주로 나와 2남 1녀가 서로 기대며 살았다.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결혼해 딸 둘을 낳고(김예지·예선)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평범한 주부로서 삶을 살았다.

2003년 40살 때 갑자기 쓰러져서 2004년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 판정을 받게 됐다. 희귀 질병으로 원인 불명이고, 운동 장애 심지어는 사지 마비에 이르게 된다. 난치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정맥주사와 베타페론 주사가 병을 잠시 멈추게 할 뿐이었다.

7번의 재발을 반복했다. 무력증과 머리를 찌르는 통증으로 쓰러졌다가 병원에 실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반복됐다. 점점 마비되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과 체념이 반복됐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뉴스를 보면서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했다. 저 아이들의 죽음은 무엇이고, 내 존재를 부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실존을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싶었다. 갈수록 마비와 진통이 진행되는 엄마를 본 첫째 딸이 작은 공책을 가져다주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꼬드겼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봉성체를 해주신 것도 생의 불꽃을 지피는 데 도움이 됐다.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읽었던 책들이 상상력에 많은 도움이 됐다. 주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인물들을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의 명언을 적었다. 카프카, 하이데거, 이백, 월트 휘트먼, 베르톨트 브레히트, 니코스 카잔차키스, 닉 부이치치를 읽고 그들과 대화했다.

왼손 검지를 천천히 움직여 1만 번 최고는 3만 번 이상의 획을 그려 3일에서 5일 정도면 작은 그림이 하나 완성됐다. 시와 스케치를 모아 2015년 6월 시화집 '모로'를 출간했다. 위쪽으로 넘기는 '가로매기' 방식의 책을 기획했다. '모로' 누워 있는 바닷속 인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표지로 그렸다. 늘 옆으로 누워서 지내야 하는 자신의 자화상이었다.

땅속의 매미처럼 엎드려 있다가 쓴 시가 '책상의 한'으로 2017년 1월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운문부 대상을 받았다. 2017년 11월에 두 번째 나온 책은 광주복지재단 장애인 복지 사업인 '달팽이지기' 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쓴 시와 그림을 엮은 '파란 달팽이'였다.

2022년 6월에는 제5회 곽정숙 인권상을 받았다. 장애인활동법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전국의 같은 처지의 3만여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인터뷰를 끝내고 내가 휠체어에 앉은 그이에게 말했다. "내년에 새로운 시화집을 내고 그림 전시도 해보세요. 그러면 희망의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날 겁니다."

대답을 듣지 못한 기약을 그이는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나 보다. 연초에 그는 다시 내게 연락을 해선 올해 5월에 시화집을 낼 원고를 다 써놓았다고 했다. 겨울 내내 그려온 작품들로 전시회를 하겠다는 용기를 굳혔다고 말했다.

올해 봄 그녀의 새로운 시화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이의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작은 전시회도 개최된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그와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아니 더 강렬하게는 정상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게 될 것이다. 그이의 책과 그림들은 '살아있음에 대한 찬사와 생명의 불씨를 피워 올리는 인간 실존'이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기고

하나의 광주·전남, 하나의 장애인체육을 향해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행정체계와 산업, 복지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애인체육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 지역 20만 장애인(광주 7만, 전남 13만)들의 새로운 체육 복지를 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장애인체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 기회로 인식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장애인체육의 공공성과 권리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통합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 자율성과 재정 논리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과가 수치로 드러나기 어려운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체육은 선택적 정책이 아닌, 장애인의 건강권·참여권·문화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통합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체육이 통합 행정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또한 행정통합은 광주와 전남의 장애인체육 상생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광역 단위의 협력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공동 훈련 시스템, 생활체육 연계 프로그램, 선수 발굴 체계 통합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2007년에 창립한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전남장애인체육회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적은 양 기관의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와 전남은 최근 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41회(2021) 7위·9위, 제42회(2022) 6위·9위, 제43회(2023) 5위·3위, 제44회(2024) 5위·9위, 제45회(2025) 6위·7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위권 전력을 구축해왔다.

통합을 통해 선수층과 종목 기반을 상호 보완한다면 꾸준한 상위권, 나아가 최상위권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합의 가장 큰 강점은 선수 자원의 결합과 전략적 집중이다. 광주는 탁구, 양궁, 육상 등에서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고, 전남은 사격, 골볼, 론볼 등의 종목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해왔다.

두 지역이 각각 강점을 가진 종목을 공동 체계로 묶는다면, 이는 순위 상승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대표 배출과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사업의 시너지다. 현재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8개 기업과 연계해 92명의 선수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19개 기업을 통해 287명의 선수를 취업시키며 운영하고 있다.

통합된 기업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창출 사업 네트워크는 단순 합산을 넘어 특광역 단위의 고용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체육회에는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도 규모 있는 선수 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회공헌과 고용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광주·전남 장애인체육 통합은 성적 향상이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선수 육성·경기력·일자리·은퇴 이후 삶까지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기회다. 두 지역의 자산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 광주·전남 장애인체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합 시대의 장애인체육은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과 참여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행정구역은 넓어지지만, 장애인의 일상은 여전히 이동과 접근성의 제약 속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통합 논의 속에서 '더 큰 조직'이 아니라 '더 가까운 체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생활권 단위의 체육 활동 보장, 중증·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참여 확대, 지역 사회복지와의 연계 강화는 통합 이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행정통합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장애인체육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5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체육 관점의 통합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와 합의, 신뢰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장애인체육에 위기이자 기회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 상생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설정한다면,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가치이며, 그 가치의 중심에 장애인체육이 있어야 한다.

취재수첩

평론을 남긴다는 선택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신춘문예 풍경은 해마다 달라진다. 지면은 줄고, 부문은 간소화해졌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자리가 있다면 단연 평론 부문이다. 지면 축소와 독서 환경 변화 속에서 평론은 점점 '효율이 낮은 장르'로 밀려나 소멸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신춘문예에서 평론 부문은 사라졌거나 중단됐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본보 신춘문예가 시와 소설, 동화 부문과 함께 여전히 평론 부문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평론은 작품을 평가하는 글이기 이전에, 문화와 사회를 해석하고 엮는 언어다.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고, 왜 질문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평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한 장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둘러싼 사유의 층위가 얇아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점에서 본보가 평론 부문을 지켜온 선택은 '관성'이 아니라 '의지'에 가깝다.

문학을 '쓰는 것'과 동시에 '읽는 것'으로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선택이기도 하다. 평론은 문학의 주변이 아니라, 문학을 성립시키는 또 하나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지속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이야기다.

올해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소감에는 공통된 결이 있다.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말했고, 자신감보다 다짐을 앞세웠다.

시 당선자는 오래된 습작의 시간을, 소설 당선자는 부지런함을, 동화 당선자는 아이들 앞에 서는 무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평론 당선자는 이 지역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겠노라고 했다. 이는 당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다.

신춘문예는 한 해의 문을 여는 제도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 쓰고, 읽으며, 질문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없다면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평론 부문을 끝까지 남겨둔 신춘문예의 선택은 당선자들에게 '계속 써도 된다'는 가장 단단한 응원에 가깝다. 꾸준한 글쓰기로 본부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작품집 출간 소식이 기다려진다.

사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AI 모빌리티 계기

광주시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처럼 자율주행차가 광주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하나의 실증 무대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를 도시단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구간이나 특정 노선에서만 자율주행차 실증이 이뤄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200대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광주시 전역이 실증 구간이지만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해 도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4월 전역이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면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해 내년 중에는 서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해 조선대병원 등 주요 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 단위 실증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관련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율주행 실증은 그동안 제한된 구간과 특정 시간대에서만 진행돼 실제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교통 상황과 예외 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가 도심과 외곽, 농촌이 혼재된 도농복합 구조를 갖춘 광주의 대규모 실제 도로에서 주행데이터를 축적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 전역이 시범운영지구와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자율주행 기술·부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광주에 집적돼 자율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샌드박스는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선정해 규제 유예와 함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도시 선정이 광주를 AI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남산 K농수산식품 없어서 못판다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총 수출액이 2024년 7억7878만 달러보다 12.7% 증가한 8억7767만 달러로 집계된 것이다. 1달러당 환율을 1450원으로 적용할 경우 약 1조 2726억 2150만원어치를 세계시장에 판 셈이다.

무엇보다 통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최고의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사실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4억6200만 달러에서 2021년 5억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2년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5억5894만 달러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다시 6억3163만 달러, 2024년 7억7878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8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매년 역대 최대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남도의 공이 크다. 먼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수출보험료 지원 등 경쟁력 강화정책을 펼쳤고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다.

이어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등 현지 유통망 확대와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수출정책도 펼쳤다.

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한류확산과 K-푸드 열풍도 한 몫했다.

특히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이 악화된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이 전년보다 13.1% 증가한 1억7512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은 칭찬할만 하다.

품목별로 보면 5억4925만 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식품, 그중 4억3167만 달러로 수출의 49.1%를 담당한 김이 가장 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으로 336t을 첫 수출한 전남 쌀도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50.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통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앞으로도 이들 식품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올해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